

# 교류 31주년 “자연·인류 공존 모색하자”

## 日 엔라쿠지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불교계 경복궁 관월당 반환 적극 협력키로

교류 31주년을 맞은 한·일 불교계가 그동안의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류의 공존공생을 모색하고 현대사회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일본 가마쿠라엔 사찰 고토쿠인(高德院)에 있는 경복궁 건물인 관월당(觀月堂) 반환에 양국 불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미야바시 쇼겐)는 5월 25-29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교토 히에이산 엔라쿠지(延曆寺)에서 제31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는 25일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이어 26일 엔라쿠지 본부주도오(根本中堂)에서 본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엔라쿠지 불교회관에서 ‘양국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병행했다.

이러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일 불교도가 간헐당 반환에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실천하고 지구생명 보호에 헌신적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53번의 법회를 알리는 다종과 일본 천태종 중정한다 고존 스님 입장,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법회는 한·일 불교의 부처님 전에 삼배와 삼귀의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 표백문, 한일불교문화



5월 26일 교토 히에이산 엔라쿠지 본부주도오에서 병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자승 스님(왼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천태종 중정 한다 고존 스님.

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 상축, 법회 시작을 알리는 계송 염불, <반야심경> 봉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인사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인공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불자들은 항상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오늘의 세계를 향해 상생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국 불교가 소통·화합하면서 세계 속의 불교로 발전하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의의는 지난해 여주 신복사에서 열린 제30차 대회에서 건립된 ‘인류화합공생기원비’의 비문에 나와 있듯이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불행한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으로 세계평화, 인류화합공생을 양국 불교계가 어떻게 실천하고 불교정도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대교종 총무원장)은 “양국의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 불교우호교류가 더욱 증진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양식에 의해 전승·발전돼 온 불교의 역사와 수행, 문화가 서로 폭넓게 이해돼 양국이 세계불교문화의 발전과 증진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엔라쿠지 주지 타케 카루조 스님은 “일본 불교의 모산 히에이산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일본 천태종 개조(開祖)인 사이초 스님(766-822)이 창건한 일본 불교의 대표적 성지인 히에이산의 역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일 불교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승 스님과 이사장 정산 스님, 조계종 균종교구장 자광 스님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조동섭 기자

# “한일 교류 생명·환경·평화에 중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자승 스님

“한·일 불교계는 지난 31년 동안 중대한 교류의 토대를 일궈왔습니다. 이제는 생명존중, 자연환경 보호, 세계평화 기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지구적인 문제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25일 일본 천태종 환영만찬에 앞서 일본 교토 브라이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오는 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불교 관계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지난해 여주 신복사에서 열린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우는 성과도 있었다. 교류 31년을 넘긴 이제는 한·일 불교계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인류가 처한 공통의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일본 불교는 상업화됐다”는 비판 속에서도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왔다”면서 “승가 노후복지, 교육개선 등 지출은 느는데 비해 한정된 분담금으로 빨간불이 켜진 중단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본 불교의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자승 스님의 이번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는 지난해 10월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해외행사 참석이다.

조동섭 기자

일본 천태종 본산인 엔라쿠지는 788년 일본 천태종 조인 전교대사 사이초 스님이 창건했다.

엔라쿠지는 토오토오(東塔), 사이토오(西塔), 요카와(横川) 등 삼탑(三塔)으로 나뉘어 있다. 히에이산 전체가 엔라쿠지라 불린다.

엔라쿠지 발상지인 토오토오에는 창건 이래 1200년을 꺼지지 않고 빛나는 ‘불멸의 법등’이 있는 본부주도오(根本中堂)와 천태종 스님들이 수계를 받는 카이당인(戒壇院), 법화대회 등 경전 강의를 여는 다이코도오(大講堂), 862년 엔닌 스님

이 창건한 훗케소조지인(法華總持院), 엔라쿠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동 문화재가 전시된 고쿠호오덴(國寶殿) 등이 있다.

사이토오는 토오토오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하며 엔라쿠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사카도오(釋迦堂) 등이, 사이트오에서 북쪽으로 4km 거리에 위치한 요카와에는 창건 이래 1200년을 꺼지지 않고 빛나는 ‘불멸의 법등’이 있는 본부주도오(根本中堂)와 천태종 스님들이 수계를 받는 카이당인(戒壇院), 법화대회 등 경전 강의를 여는 다이코도오(大講堂), 862년 엔닌 스님

1200년 역사의 엔라쿠지의 불교문화와 히에이산의 천혜의 경관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 미륵사지탑 청동합서 유물 4800여 점

### 국립문화재연구원 발표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금동사리호 등과 함께 발견된 청동합서에서 구슬류, 금제장식, 직물류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청동합(靑銅合)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

의 유물을 수습했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청동합은 발견 당시 심한 외부 부식으로 인해 개봉이 미뤄졌던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실시하면서 내용물이 확인됐다.

청동합에서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금제구슬 370여 점과 금제고리, 금제소형판 등 많은 양의 금제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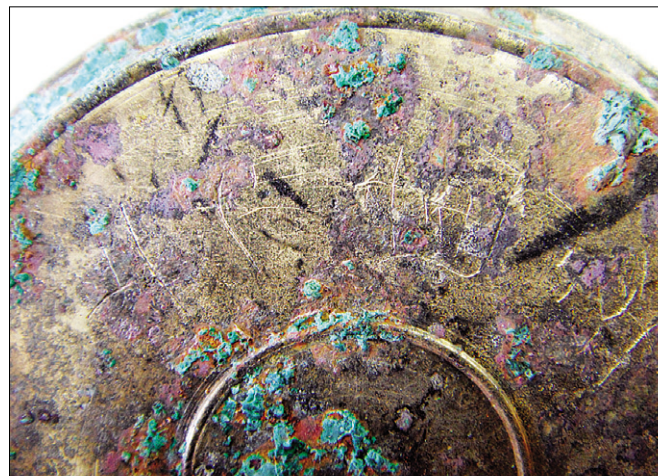
유리구슬, 진주, 곡옥 등 48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그 중 가장 큰 4번 합에서는 44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고, 1점의 곡옥은 채색된 금장식 모자가 씌워져 있어 매우 이채롭다. 또, 직물과 향분(香粉)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질 등이 확인됐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동합은 운두가 낮은 등골넓적한 형태로 모두 6점이다. 크기는 직경 5.9-8.3cm, 높이 3.2-4.6cm 정도인데, 주조(鑄造)로 제작됐다. 대부

분의 합은 문양이 없지만 6번 합에는 초화(草花)무늬와 당초(唐草)무늬가 새겨져 있다. 1번 합 뚜껑에는 ‘上部達率目近’(상부달률목근)이라고 음각된 명문이 확인됐는데 이는 상부(上部)의 달률(達率)‘백제 16관등 중 제2품인 목근(目近)이라는 사람이 시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동합과 그 수습 유물에 관한 일차적인 조사내용은 5월 27-28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에서 소개됐다.

조동섭 기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청동합 뚜껑.

# 진각종 안산심인당 지진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5월 24일 안산시 사동 현장에서 (가칭)안산심인당 신축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에서 “안산심인당 지진불사는 내 안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전법의 서원을 세워 밀엄정도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심인당은 1145㎡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자성학교와 주거공간, 2층에는 심인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자비실천도량 용마산 용암사

# ‘나눔의 산사음악회’

## 초대의 글

한줄기 빛이 마음의 어둠을 밀어낼 때, 운무 뒤덮힌 용암사 종소리 들리고! 빛과 여백은 색이 없지만 어느 물감보다 울림이 큼니다. 그 울림에 때로는 피안의 세계를 산책하고픈 유혹으로 밀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용암사에서 ‘나눔의 산사음악회’를 개최코자 하니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용암사 주지 관오 합장

일 시 :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음, 5월 5일) 오후 4시부터

장 소 : 서울 광진구 중곡 4동 176-42 용마산 용암사 경내

문 의 : 02)446-1571

사 회 : 이상운(개그맨)

출연진 : 설운도, 도시의아이들, 김원배(텔런트), 김활선(불자가수 회장), 변우식 Baritone (성악/삼육대학교수), 주경숙무용단, 길영은(골든팝), 김태연, 강익배(통기타가수-우정출연), 용덕중, 품바, 이범용악단

